

2017 부활주일

부활은 더 이상의 고통, 아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1.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5:2-3]

2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3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 베데스다 -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베드자다라 못 (베데스다)이 있었다. 그 못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회에서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저주스러운 병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매일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문제는 '고통'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현주소는 바로 '고통'이다. 교회와 기독교로 대변되는 우리의 신앙이 직면해야 할 현실은 많은 사람들 안에있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때문이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 정의한다. 이 때부터 인간의 삶의 역사는 인간안에 있는 죄의 유산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전이라 볼 수 있다.

(2) 답을 찾는 인간들

사람들은 답을 찾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통 중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다. 출애굽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처한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400년 넘는 고통의 종살이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었다. 그들의 힘으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애굽은 무엇인가?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다. 애굽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하나님이 내리신 9가지 재앙을 견딘 곳이 애굽이다. 결국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애굽은 무너진다. 첫 번째 재앙에 그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에 있었다.

출애굽은 누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2. 진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답을 찾는 인간

(1)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

[요한복음 5:4]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고통중에 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이다.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5:4절에 나온 내용처럼,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은 후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다는 내용이다. 베데스다에 왜 고통 받는 자들이 많았겠는가? 그들에게 베데스다 못은 절대적 희망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마다의 ‘베데스다 못’ 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찾는 베데스다 못이 정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인가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2) 휩쓸려 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은 이유는 하나이다. 자신이 직접 베데스다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두고 내려오는 희망의 전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베데스다 못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전설을 토대로 형성된 ‘막연한 희망’ 이었다. 진리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쳐질 수 있다고 하던데”,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있는 진리는 ‘절대적 믿음’ 을 제공하지 못한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속에서 ‘절대진리’ 란 없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일에 대한 ‘의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속의 사조이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의심으로 모든 것을 해체해 버렸다.

(3) 베데스다 못을 향한 막연한 믿음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

고통을 해결하고 싶지만 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데스다를 향한 막연하고 잘못된 믿음에 휩쓸려 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을 떠났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정한 장소인 ‘에덴-하마콤’ 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에덴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가 되었던 실제적인 장소이다. 그 곳에는 고통, 아픔, 슬픔, 두려움, 정죄, 수치심, 열등감, 분노 등 ‘이 없다. 위에서 열거한 인간이 고통을 통해 느끼는 모든 아픔은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 안에 생겨난 것이다. 에덴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육’ 이 되었고, 결국 ‘흠’ 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4) 죄인된 인간 - ‘죄성’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과 같다. 출애굽은 이에대한 좋은 예이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간 사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금을 모아 ‘우상’ 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많은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다. 그러나 광야가 주는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첫 계명은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첫 계명을 받아서 들고 온 후에 모세가 보았던 첫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성이다.

3. 베데스다 못에서 진짜 치유를 경험한 38년된 병자

[요한복음 5:5, 7]

5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7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1) 38년된 병자의 문제점 - 의존적 믿음

본문에는 38년된 병자 한 명을 소개한다. 38년이나 병들었던 병자의 삶을 생각해보라.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고통에 완전히 인이 박혀버린 삶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존적' 마음이다. '누가 나를 못에다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는 것이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통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 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이다. 구걸하는 삶이다. 의존적 신앙의 형태이다. 내 모든 고통은 남들이 나를 들어서 넣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문제이다'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진리' 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맛보는 것이다. 오늘날 신앙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병폐는 '진리에 임하는 태도' 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믿음' 에 대한 문제이며 '불신앙' 의 문제이다.

의존적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내가 믿고있는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죄감, 수치감,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진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5:6, 8]

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은 38년된 병자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 하셨다.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38년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의존적 태도로 대답을 한다. 그런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처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 해 주셨다.

38년된 병자가 치유를 받기위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 베데스다 못의 전설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우리가 오늘 믿고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분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죽으셨다.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고통, 아픔,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8년된 고통받는 병자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